

문화

사직공원, 자연과 조화 이룬 예술공간으로

조민석씨 등 5명 참여... 환경 훼손 않고 기존 시설물 친환경적 개선



광주 사직공원 동물원의 초대형 비단 구렁이를 기억하는가? 지난 1978년 강진 출신 한 재일교포가 보내온 인도네시아산 비단구렁이는 길이 3m, 몸무게 37kg에 달해 동물원을 찾은 아이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광주 시민의 아련한 추억의 공간, 사직공원에 '예술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훼손하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사직공원은 8만5610㎡의 면적에, 상수리나무 등 39종 1만631그루의 나무가 숨을 쉬고 있다. 이에 참여한 조민석(메스 스튜디오 대표),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이민아(협동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신혜원(로컬디자인 대표), 박동준(포에이건축사) 대표 등 5명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구상안을 내놨다.

소공원장, 벼룩시장, 야외 갤러리 등으로 활용된다. 또 이민아씨는 차도와 인도, 언덕이 조화를 이룬 공간인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일대에 이색 산책로를 만든다. 가파른 언덕인 이곳은 오후 시간에는 아름다운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받으며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숲길이다. 이씨는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차도와 인도, 언덕과 나무숲이 커켜이 쌓인 풍경을 형상화한 산책로 작품구상안을 발표했다.

드민턴장 창고의 기존 틀을 살려 기하학적인 도형과 선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주변의 숲과 어우러진 선의 조화가 아름답게 펼쳐진 작품이다. 박동준 대표도 공원관리사무소 건물에 문화가 흐르는 이색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공원관리사무소

이밖에 신혜원대표는 사직공원 옛 수영장 부지와 인근 계단을 소공원장으로 만드는 작품구상안을 내놨다. 옛 수영장 시설물인 계단을 그대로 살려 객석으로 만들고, 수영장 부지를 무대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이다. 주변에 우거진 나무는 소리를 울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등 자연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인다.



조민석 작 사직공원 비집



박동준 작 열작

내일 사직공원 예술프로젝트 구상안 공개... 6일까지 DJ센터서 전시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번 플라 큐레이터로 활동했던 김영준 대표는 사직공원 입구의 옛 KBS방송국 입구 도로 절개지에 나무와 언덕, 계단이 어우러진 작품을 설계했다. 높낮이가 심한 언덕을 그대로 살린 뒤 수 십개의 계단을 교차시켜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듯한 동선을 만들어 냈다. 계단과 언덕에서 자유롭게 앉거나 기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곳은

인근의 팔각정에는 지난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이색 조형물이 설치됐다. 하지만 공원관리사무소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팔각정과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박 대표는 인근의 사직단, 팔각정과 어우러지도록 공원관리사무소에 예술의 색을 칠하고, 이곳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 지휘한 박흥근(주) 포유 대표 예술감독은 "참여 건축가들이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건축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시민과 자연, 조형물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깊어가는 가을 그윽한 묵향에 흠뻑



이재희 첫 개인전 3~9일 대동갤러리

문인화가 이재희씨가 3~9일 광주 대동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이재희는 '내 삶의 한 페이지'를 주제로 묵향 그윽한 신작을 발표한다. 진하고 열은 다채로운 묵의 향연과 물처럼 흐르는 선의 조형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묵을 덧칠해 바위의 강인함을 표현했으며 묵의 자연스러운 스미기를 통해 물의 잔잔한 흐름도 형상화했다.

더욱 생생하게 묘사한 붓꽃과 동백꽃 연작도 돋보인다. 그림과 어우러진 서예는 힘과 삶의 교훈이 느껴진다. 지난 2000년 연진회, 우송헌 먹그림회 등에 입문해 그림을 배웠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소치미술대전, 전남도전, 광주시전에 입선했고 일본39년 한국화 특선했다. 전남문인화협회전, 먹그림 회원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현재 한국미술협회, 광주전남문인화협회, 울림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062-222-0072. /오광복기자 kroh@

연극 '가정식 백반...' 앙코르 공연

12일까지 씨디어트홀

올해 광주에서 선보였던 연극 가운데 인상적 작품 중 하나였던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이 앙코르 공연을 갖는다. 오는 12일까지 목·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시·8시 씨디어트홀. 주인공은 만화가 김종태와 서적 외관인 양정호. 작품 전반부는 한물 간 백과사전을 팔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양정호와 이를 외면하는 김종태의 이야기다. 소소한 유머도 있고, 생활인의 애환도 있고, 꿈을 놓치고 사는 이들의 허탈함도 있다. 수십만원 짜리 백과사전을 판매한 양정호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김종태가 함께 '가정식 백반'

을 먹자고 권하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의 의미, 선의의 거짓말, 싸구려 동정심, 설봉산 희망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야기들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관객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난 공연에서 맞출언기를 선보였던 노희철씨가 이번에도 판매원 양상호 역을 맡았으며 '붓꽃 동산' '남자군' 등에 출연한 김성관씨가 김종태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5000원. 씨디어트홀 카페(cafe.daum.net/drama2003)에서 예약하면 30% 할인 혜택을 준다. 문의 062-521-75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위촉 박승희 씨

"관소리·오페라 접목 '판페라'로 새 작품 시도"

"문화예술단체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인화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과 지휘자, 단원과 단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1일 전남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로 위촉된 박승희(44)씨는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면 결국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에너지가 발산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성 출신으로 남도예술고(현 광주예술고)를 거쳐 서울대 국악학과(피리 전공)를 졸업한 박씨는 현재 중앙대 대학원 예술경영과에 재학 중이다. 중요무형문화제 제1호 '종묘제례악'과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등을 이수했으며 월드그룹 '실크로드 21' 대표, 오스케스트라 아리랑 단장 겸 상임지휘자도 맡고 있다.

"전남은 판소리를 비롯, 국악과 관련한 자산이 많은 풍요로운 곳이지요. 도립국악단이 지금껏 이어온 정통성을 기본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꾸준히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국악원 피리 주자로 15년 넘게 근무한 박 지휘자는 정통을 중시하는 정악연주단과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창작악단에서 모두 활동, 국악의 전통적인 면과 현대적인 재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지휘자가 도립국악단과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장르는 '판페라'다. 관소리와 클래식 오페라를 접목한 판페라는 이미 박씨가 지난 2009년 국립국악원에서 '속대리'라는 작품으로 선보였던 장르다. "당초 판소리를 전공하다 피리를 진로를 바꿨던 터라 항상 관소리가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방



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죠. 판소리가 고답적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본 우리 소리의 틀은 유지하되, 클래식이나 뮤지컬 등과 접목시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판페라'가 그 시도라 할 수 있지요." 박 지휘자는 도립국악단의 히트상품인 토요일 공연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교육 멘토링, 평생 후원제 도입, 단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기획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2011 Green Bicycle Festival and Love for Agriculture Festival.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fresh produce and a group of cyclists. Text includes: '자전거와 함께 농촌사랑을', '2011 Green 자전거축전제 · 농촌사랑축전제', '2011년 11월 5일(토)~6일(일) 광주상무시민공원(광주광역시수변공원)', and details about the festival's activities and sponsors like SK Telecom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